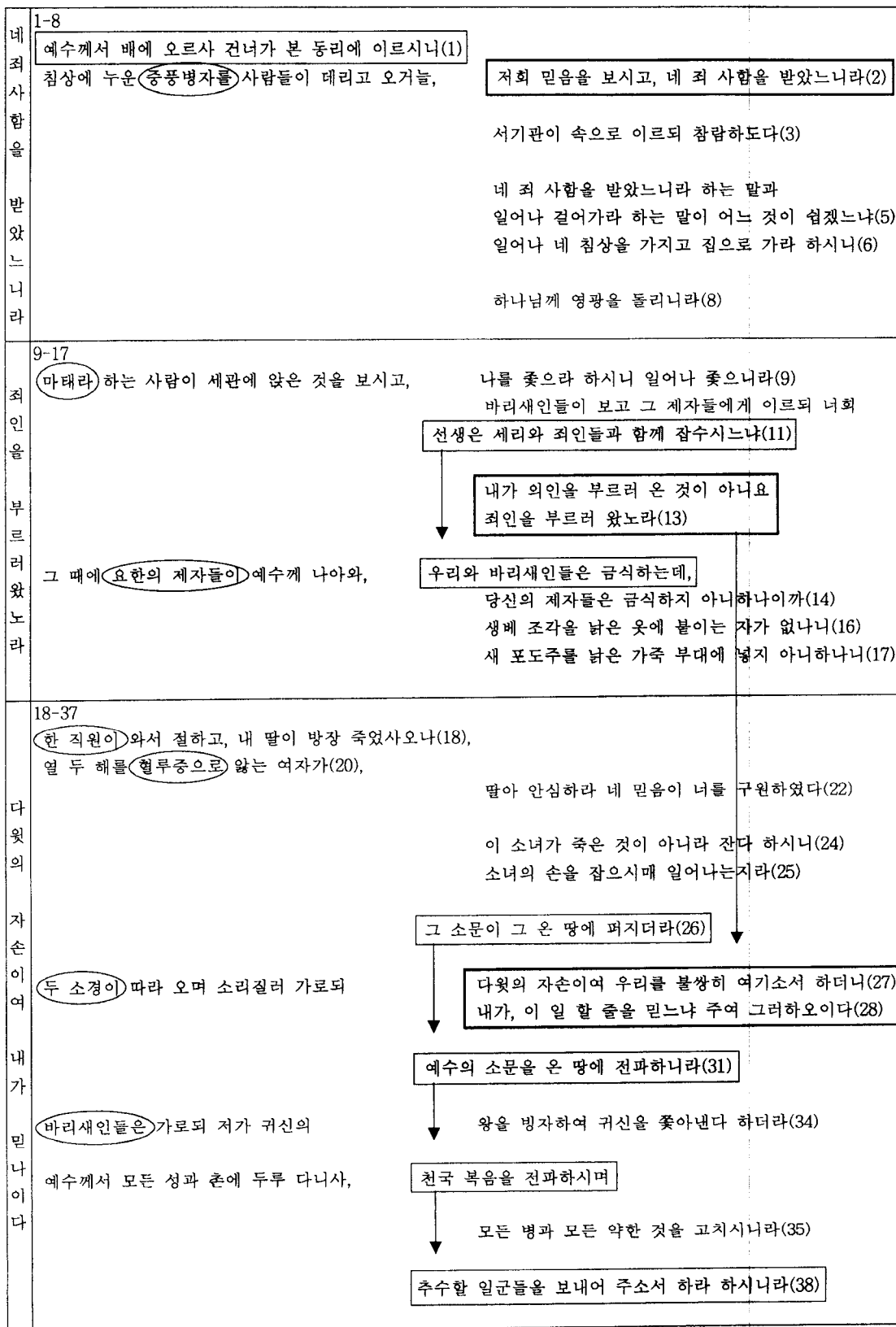


마태복음 9장 개관도표

주제 : 다윗의 자손으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태복음 9장, 다윗의 자손으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요절 :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9장의 내용은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일, 마태를 부르신 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죽은 소녀를 살리신 일, 소경을 고쳐주신 일 등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러하듯이 복음서 기자는 더욱 분명한 목적과 주제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장에 다양한 기사가 등장한다하여도 주제는 오직 한가지, 예수가 누구인가를 증거하는데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마태는 “산상설교”(5-7장)를 기록한 후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7:28) 하고 주님의 가르치심, 즉 말씀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런 후에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것을 기록함으로,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9:8) 하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서를 대할 때에 그리스도 자신을 증거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좋아하게 할까 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예를 들면 중풍병을 고치신 기사를 통해서 “당신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 하고 직행을 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병으로 고생하는 어떤 이들에게 유익을 주고 좋아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병”만을 볼 뿐, “죄”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병 고침 받을 생각만 하고 주님이 누구이신가, 왜 오셨는가를 모르게 됩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1-8)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둘째 단원(9-17)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셋째 단원(18-38) 다윗의 자손이여 내가 믿나이다

첫째 단원(1-8)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2).

① 첫 절은,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리에 이르니”(1) 합니다. 주님은 배를 타고 “건너편 가다라 지방”(8:28)으로 가셔서 “군대마귀”를 정복하시고, “본 동리”(1), 즉 본부로 돌아오신 셈입니다. 이는 마치 출정(出征)했던 장수가 개선(凱旋)하는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②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2상), 이 기사를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려는 것인가? 마태의 기록은 마가의 기록(막 2:23-12)이나, 누가의 기록(눅 5:18-26)보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강조점의 차이로 여겨집니다. 마가나, 누가가 강조점을 “믿음”에 두고 있다면, 마태는 “죄 사함”에 두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람의 “믿음”보다 주님의 “죄 사함”을 클로즈업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한 일, 즉 지붕을 뜯었다는 일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③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2하) 하십니다. 사건은 이것으로 일단락이 된 것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① 이 무대에,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속

으로, ㉠ “참람하도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신성모독이기 때문입니다.

④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4) 하십니다. 서기관들은 주님의 권위 앞에 압도를 당하고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 “생각을 꿰뚫어 보시다니”. ㉢ 그런데 어찌하여 “악한 생각”이라 하셨을까? 이는 필시 서기관들이 속으로 주님을 사기꾼으로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중풍병을 고칠 수 없으니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사기 친다는 말입니다.

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5) 하십니다. 형제는 어느 편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일 것입니다. 이는 사기꾼도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편이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을 고치는 일은 말씀만으로 가능하나, “죄 사함”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음으로만이 가능하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서기관들)은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작은 일로 여기고, 누군가 암을 고침을 받았다고 하면 아주 큰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아니한가?

⑥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6상), 마태는 이점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6하-7), 무엇이 입증(立證)이 되었습니까? 침상에 누어 실려왔던 중풍병자가 말씀 한마디에 일어나 걸어갔다는 것은 그 분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이를 목격한 서기관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 둘째 단원(9-17)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좃으라 하시니 일어 좃으니라”(9).

① 예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복음서의 기사들이 반드시 시간 순으로 배열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같은 기사라도 복음서마다 증거하고자 하는 주제에 따라서 놓여있는 위치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기사가 놓여 있는 문맥(文脈)과 좌표(座標)를 유의해보아야만 합니다. 식탁을 차릴 때에 요리를 아무렇게나 놓는 주부는 없을 것입니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려 배치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마태의 소명 기사를 보면, 강조점이 “부르심” 자체(9-10)에 있기보다는, 세리를 부르신 데 대한 “바리새인들의 반응”(11-13)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즉 바리새인과 세리 중 누가 더 합당한가 마태는 이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②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10), 이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시의 신앙관습(慣習)으로 보면 파격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11) 하고 비난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③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라야 쓸데 있느니라”(12) 하시면서, 주님의 오신 목적을 명쾌하게 밝히신 명언이 주어집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13). 주님의 말씀은 두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공홀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호세아 6:6절의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는 인용입니다. “제사”란 종교적인 의식(儀式), 형식(形式)을 말합니다. 그런데 공홀(矜恤), 인애(仁愛)는 신앙의 내용(內容)입니다. 기성종교인들이란 “기름 없는 등”만 붙들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을 위험이 어느 때나 있는 것입니다.

④ 둘째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진의는 자신이 병들고, 죄인임을 깨달은 자만이 주님을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병들지 아니한 자, 의인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런데도 당시의 종교가들은 마치 의인인척 의식을 하면서, 백성들을 공홀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정결 규례를 구실 삼아 강도 만난 자를 부정히 여겨 피하여 간 제사장과, 그를 공홀히 여겨 기름을 바르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온 사마리아인과 누가 진정 하나님께 합한 자인가?

공홀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① “그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14상) 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려는 것인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14)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들의 말대로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 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11),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14) 하고 비난하는 질문이 같습니다. 내용도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잡수시느냐, 어찌하여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하고 의문(儀文)에 관한 질문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 편에 속하는가? 아니면 예수님 편에 속하는가?

② 주님은 “생베 조각과 낡은 옷(16),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부대”(17)를 비유로 하여 답변 하십니다. 주님의 복음은 “생베 조각과, 새 포도주”와 같고, 이제까지의 의문(儀文)은 “낡은 옷과, 낡은 가죽부대”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17하)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해지는 것은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11:13) 하신 대로 세례 요한은 율법에 속한 자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맥을 바리새인과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③ 바리새인의 비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첫째는,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히 8:13) 하신 새로운 시대의 도래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특성은 “개혁”(改革)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니라”(히 9:10). 주님 당시의 교권주의자들은 이 “개혁”을 두려워하여 저항을 했던 것입니다.

④ 둘째는,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15상) 하심에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은 마치 “혼인 잔치”가 시작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복음시대가”가 “혼인잔치”와 같다하심은 주님께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22:2) 하신 비유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천국잔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사 25:6) 하고 예언된 바입니다.

⑤ 주님은 신랑이요, 그의 제자들은 초대받은 손님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도 “기록하라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계 19:9) 합니다. 그렇다면 신부는 누구인가? 성도들은 초대받은 손님이면서 동시에 신부인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신부는 한 사람뿐이나, 하객은 많을수록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15하) 하고 신랑은 신부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셔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치 하와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아담이 갈비뼈를 제공해야 하듯 말입니다.

⑥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개혁”이라는 말이 세속주의나, 자유주의 신학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변질인 것입니다. 주일은 성수 한다 하면서 매일 드리는 산 제사는 모르고, 십일조는 드리면서도 우리 자신이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는 구속의 은총은 망각하고,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축복에 두는 일, 복음의 자유함을 외면하고 신율법주의로 속박하는 일 등은 벗어 버려야 할 낡은 가죽 부대인 것입니다.

셋째 단원(18-38) 다윗의 자손이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18).

①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 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19), 그 사이에 “열 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20)가 등장합니다. 마태는 “낡은 가죽 부대와 새 부대”를 대조해서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겹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21) 믿음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22상) 하십니다. 누가복음의 병행귀절을 보면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고 찾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인은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만일 혈루증 앓는 여인이 바리새인을 만졌다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인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② 그런데, “딸아” 하고 정다이 불러주시는 것이 아닌가? “안심하라” 하십니다. 아! 12동안을 혈루증으로 고생하면서 이런 위로의 말을 들은 적이 있었던 말인가? “딸아 안심하라”는 말씀을,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11) 하는 바리새인들의 비난과 결부시켜 보십시오. 형제는 이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은혜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사 40:1-2).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22).

③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환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24) 합니다. 주님께서 이 소녀가 죽은 것을 모르신 단 말인가? 죽은 자를 향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는 말을 전에 들어본 적이 있단 말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고 말하는 그는 누구란 말인가?

④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하나님의 아들께서 무명의 소녀 시신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문둥병자에게 대셨습니다. 이것이 “새 부대요, 새 포도주”입니다.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25-26) 합니다.

혈루증과 죽은 자의 구원

①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 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붙잡히 여기소서 하더니”(27) 하고 두 소경이 등장합니다. 복음서는 이를 통해서 예수께서 누구인가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28), “네가 믿느냐”,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는 소경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란 말인가?

②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이 밝아 진지라”(29-30) 합니다. 그렇다면 소경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단적으로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호칭에 나타납니다. 이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고백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다윗의 자손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백부장을 가리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8:10) 하셨습니다. 중풍병자의 믿음(9:2), 혈루증 여인의 믿음(9:22), 두 소경의 믿음, 주님께서 이제까지 그토록 만나보기를 원하셨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결국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믿음”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③ 이제 다시 한번 마태복음의 구도(構圖)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인치심을 받으신 후에, 4장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5-7장에서 산상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8-9장에서는 문둥병(8:2), 중풍병(6), 열병(14), 바람과 파도(24), 무덤 사이에 있는 귀신들린 자(28), 중풍병(9:2), 죽은 소녀(18), 혈루증(20), 두 소경 등을 집중적으로 치유하시는 기사가 나오는 구도입니다. 5-7장이 말씀사역이라면, 8-9장은 치유사역입니다. 마태는 “말씀사역”(5-7장)을 통해서 예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음”(5:17)을 증거했습니다. 그 결론은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7:28-29)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④ 그렇다면 “치유사역”(8-9장)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8:17-18) 합니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9:36)하는 우리 무리의 “연약함과, 병과, 죄”를 친히 담당하시는 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혈루증”으로 인해 부정해진 여인도 예수님을 “만질”(9:20) 수가 있었습니다. 시신의 “손을 잡으시고”(25), 소경의 눈을 “만지시며”(29)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안심하라(9:2), 딸아 안심하라”(22). 그리하여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9:26),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31) 하고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35) 한 복음 전파요, 하나님의 나라건설이요, 확장이었던 것입니다. 이 치유사역을 통한 결론은,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9:8) 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